

독서토론: 로고스를 입다

## 제8장 예수의 제자 또는 학생이 되는법

###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죽을 때 까지 누군가의 제자로써 삶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프로그램 중 특징은 예수님의 학생이자 동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 또는 그분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요 그분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이 길은 생명과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천국이 모두에게 열렸으니 그 사실에 비추어 인생을 다시 생각하라고 한 것이다.

순종과 실천이 산상 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그분이 알려주신 최선의 길로 가지 앓으려는 각종 시도들을 미리 간파하였고 우리를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인도할 사람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행동만을 보면 된다.

그래서 4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4가지 비유의 결론은 순종-즉 행함이다.

- ① 좁은문(순종, 순종에 필요한 믿음)과 넓은문(내마음대로 하는 삶)
- ② 속이 좋은 나무(열매는 순종임)와 나쁜나무-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없는 이리
- ③ 내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주의이름으로 큰 일들로 순종을 대치하려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 ④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제자는 그분과 함께있어 그분으로부터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다.

이것을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독과 침묵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다. 즉 대화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방식은 성령의 임재요 그분의 충만함이다.

천국의 실체는 실제적인 것이며, 내면적인 것이다. 표적과 기사, 청빈, 순결 등은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 생활 자체는 아니다. 예수와 지속적인 교체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생활이다.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부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의 모습, 제자가 되는법, 제자 삼는 방법을 살펴본다.

### <예수의 제자의 모습>

단순해야 한다. 일상의 삶 전체를 활용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즉, 나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제자도는 단순하다.

제자는 상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상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로 작정한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였다. 하나님 나라안에 사시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셨고, 제자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제자는 일상의 삶 전체가 제자도를 기를 수 있는 장으로 여긴다.

내 일에 대한 생각도 내 일을 하되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제자의 삶에 초점을 두는 가장 분명한 길이다.

내가 하는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일의 질(質) 또한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 우리가 일을 잘 하려는 까닭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태도를 대한 사례는 페이지 436을 참고

“전임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현시, manifesting)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 <제자가 되는 법>

Q. (과연 제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과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선택하게 하는 영혼은 무엇인가?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할려고 하는 상인 비유를 통해서 그 영혼의 진단해 보았다.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그냥 흘려보낼 수 도 있었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 발견된 가치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 바로 제자가 되는 하는 영혼의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것이 다른 모든 가치의 대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더 온전히 보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 “구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에 거하고, 강한의지의 표현인 결단이 필요하다.

###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라야 하고, 제자를 삼을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참 스승임을 믿게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한다. 제자 삼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 나라에 대해 알려주고, 기도와 인도를 통해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일일뿐이다.

행동의 결과-선한 행동-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실제 신념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 <생각하기>

? 현재의 교회내에서는 그리스도인 되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굳이 예수의 평생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기쁜 소식”이 역설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 죽음 통과 성품 완벽 아니라 죽을 때 그 성품을 그대로 갖게 된다면....지금 어떻게 해야하는가?

? 현재의 교회는 회심이나 교인인도만 전념하고 제자 삼는일에 치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그게 교회의 현실인가? 소비자적 기독교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